

제목: "남겨 두신 은혜"

말씀: 에스라 9장 3-9절

에스라가 도착한 예루살렘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봉헌한 성전은 초라했고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하신 통혼을 통하여 온갖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강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 잡혀갔던 _____ 생활입니다.
2. 예루살렘으로 _____ 하신 놀라운 예언의 응답입니다.
3.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을 _____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부활절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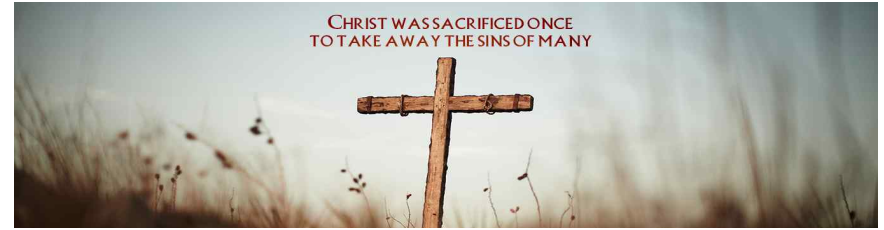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부활 주일예배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에스라 9장 3-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Ezra 9: 3-9- 구약 722 페이지 Presider
- 말 씬 "남겨 두신 은혜" 김성민 목사
 Message What is God's remnant Rev. Kim
- 헌금/기도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 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청둥오리)

세계적으로 날씨가 많이 바뀐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산다. 특별히 청둥오리를 보면서 알게 된다. 일하는 곳에 유리 창문이 많아서 날씨의 변화를 금방 알 수 있는데 3월 초가 되면 오는 손님들이 있다. 청둥오리들이다. 청둥오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무리를 지어 도착한다. 보통 3-400여 마리는 되는 것 같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다. 그래서 올해는 언제 오려나? 기대하고 있었다. 무리를 지어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는 오리들 때를 볼 때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시끄럽고 더럽기도 하다. 하지만 큰 파킹장 저쪽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다. 청둥오리들이 오지 않는다. 오직 두 마리만 왔다. 나머지 400여 마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 한주를 기다리고 또 한주를 기다려도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 3주가 넘어간다. 보통 청둥오리들이 그곳에 왔다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다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3-4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며 땅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단 두 마리만 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다. 그 정도로 궁금했다. 그렇게 3번째 오리들의 나들이를 보니 은근히 나 혼자 그들에게 정이 들었다. 그래서 더 걱정인 것이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창문 뒤에서 그들의 오고 감을 본다.

청둥오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인생이다. 청둥오리와 같이 나도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들이 자신들에 가장 알맞은 곳을 찾아 날아다니듯 나도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을 유지하고, 최고의 헌신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최선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이 부끄럽기만 하다. 언제고 믿음에서 떠나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믿음의 에너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 번 날아오르는 삶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 84편 5-6절) 라고 말씀하신다.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갈 때에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청둥오리들이 열심히 집어 먹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부지런히 집어 먹어 또 다시 날아오르는 주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삶이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5월호)

생명의 삶 5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